

# 선운사 도솔암 교육·복지 전담 사찰로

## 자장기도 도량 및 수행 지원 사찰로 육성 밝혀

지장기도 도량으로 전국에서 많은 불자들이 찾고 있는 선운사 도솔암이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도량으로 거듭난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최근 신내암자인 도솔암을 교구본사 직영도량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도솔암의 기도 수익금을 교육과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운사는 도솔암을 지장기도 수행전문도량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신도들에게는 평생 기도도량으로 완전을 삼을 수 있도록 기도와 수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솔암에서 발생하는 기도 수익금은 선운사 본사 및 말사의 승려노후수행마(석상마),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고창어린이집 등 복지시설과 초기불전승가대학원 교육과 복지 등 목적불사에 사용된다.

선운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려노후복지 사업과 초기불전승가대학원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운사는 도솔암을 찾는 불자들이나 참배객들이 편안하게 기도 수행할 수 있도록 종무원들의 교육을 더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교역직을 비롯해 종무원을 공개 모집하고 삼보정재가 불교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 기도수익금 복지·교육사업 투입

### 재정 공개·종무원 공개모집

### 보은염 판매, 승려노후 활용

수 있도록 수익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정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한 보은염(구운 소금, 황토소금, 천일염)을 선운사가 품질을 보증하며 보은염선운사복지재단을



선운사 도솔암의 내원궁 전경과 보물 280호 내원궁 지장보살좌상(좌), 보물 1200호 도솔암 마애불(우)

통해 판매해 수익금을 노후수행마를 등 복지금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선운사 도솔암은 선운사와 함께 백제시대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선운사 산내 암자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도솔암은 도솔암 서편의 마애불좌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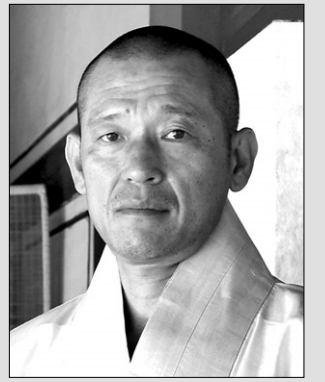
물1200호)과 함께 세계 유일의 미륵·지장성지로 많은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솔암 도솔전내원궁에 봉안된 지장보살은 천장 지장보살로 상계교주(上界教主)로서 천상의 교주로 신앙되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도심포교 활성화에 진력할 것”

### 구례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



“다른 교구에 비해 열악한 포교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해 도심포교 활성화에 인기동인 집중하겠습니다.”

구례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이 취임 4개월을 맞아 화엄사와 조계종 제19교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영관 스님은 “순천, 광양 등 신도시에 포교공간을 개설하고, 각 단위 사찰별로 신도교육과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앞장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구본사 차원에서 제시하며, 사찰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화엄사는 본사 차원에서 도심포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말사 포교현황과 지원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

먼저 화엄사 본사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어린이보호를 장려하고, 가족단위의 범회 참여유도를 위한 일요법회를 개설했다. 또 향후 청소년법회를 비롯한 계층별 법회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구례군장애인복지관과 구례군노인요양원 등도 운영하고 있다.

영관 스님은 여기에 화엄사의 문화적 가치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영관 스님은 “화엄사는 지리산에 위치한 화엄종찰로 사적기에 따르면 8월 81일자가 있었던 대가람”이라며 “현재 각 화전, 석등, 사사자삼층석탑, 영산회괘불탱 등 국보 4점과 보물 8점, 천연기념물 2점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한국전통문화의 보고”라고 강조했다.

영관 스님은 이어 “이런 풍부한 문화적, 지리적 배경과 말사를 연계해 템플스테이와 문화포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화엄사 괘불재, 화엄성경복원, 신내암자 간의 명상체험길 구성,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중암 다도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화엄사는 기존 템플스테이도 본사뿐만 아니라 전은사, 연곡사, 사성암, 도립사, 향일암, 흥국사 등 말사들과 연계해 진행한다. 또 사사자삼층석탑과 연기조사의 효 사상을 알리는 효 명상, 효행교육 등도 진행한다.

하지만 화엄사는 작은 고민을 앓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이다. 지리산 전은사의 경우 7월 19일 대법원에서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과 통행차량에 대해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전은사는 영관 스님이 2006년부터 주지소임을 맡았던 곳.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영관 스님은 “대법원 판결은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인정 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통행차 편의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며 “천은사만의 문제가 아닌 종단과 정부, 지자체가 해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먼저 본사가 안정돼야 말사들이 전법과 포교에 매진할 수 있다”며 “화엄사는 어른스님들의 덕화와 선후배 스님들 간의 원용화합으로 다른 사찰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경술국치 아픔 불심으로 알린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8월 23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전시유물을 둘러보고 있다.

### 동국사 일제 강점기 유물, 군산에서 대규모 전시

일제 강점기 수송장 역할을 한 군산 지역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독립운동 자료를 전시해 눈길을 끈다.

경술국치 103주년을 맞아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개최하는 ‘이 날을 목 놓아 통곡하노라’에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동국사 소장 일제 관련 유물 100여 점을 내었다.

이번 기획전은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담은 ‘제국의 멸망’, ‘폭력과 저항의 기억’, ‘조선은 병참기지’, ‘광기의 종말’, ‘수탈과 저항의 도시 군산’ 등 5개 주제

로 전시된다.

전시품 중에는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긴다는 내용의 순종황제 칙유, 위안부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본육군 성병예방약, 독립선언서, 일본 군도와 총, 을사오적 이완용이 자신의 친일행각을 미화하는 유목까지 일본의 만행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선조들이 펼친 저항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종걸 스님은 “동국사에 소장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유물은 3000여 점에 달한다. 그 중 독립과 관련된 자료 등 유물 100점을 전시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가 경술국치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무등산풍경소리 갤러리 ‘아하’ 개관식



광주 중심사 주지 영관 스님이 개관식에서 박헌 사진작가의 카밀라스 산을 보고 있다.

매일 한차례씩 산사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는 무등산풍경소리가 100회를 맞아 도심 속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갤러리를 열었다.

무등산풍경소리(공동대표 영관, 중심사 주지)는 8월 27일 광주 중심사인 금남로에 갤러리 ‘아하\_AHHA’ 개관식을 개최했다.

갤러리 이름인 ‘아하’는 누구든지 잘 듣고 ‘아하’하는 깨달음의 첫 성을 내고 자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 전시전에는 18인의 작가들이 참여해 도예, 팜아트, 조각보, 사진, 서양화, 한국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장구한 세월을 우리의 일과 함께 살아온 ‘산(山)’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선보였다.

개관식에는 영관 스님, 최명진 목사, 노

희용 동구정장 등 100여 명의 광주지역 문화인사 등이 참여했다.

영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관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작지만 알찬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풍경소리는 2002년 중심사 주지였던 유일철 스님의 노력으로 ‘생명과 환경에 사랑하는 종교인의 모임’이 만들어 진데 이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성직자와 환경단체,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힘을 모으며 탄생했다.

그동안 중심사 문화광장을 기본 공연장으로 성당, 교회, 원불교당을 비롯해 사회 문제 발생하는 곳곳에서 103회 이상의 음악회를 진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미얀마 어린이 초청 한국문화 체험

지구촌공동체(이사장 월주)와 마산 광명암(주지 정인)은 8월 20~25일 미얀마 아난다미따 광명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 17명을 초청해 한국불교문화체험 및 역사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아난다미따 광명초등학교 일행은 경주 불국사와 통도사, 금강산을 참배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자동 생산라인과 광안대교, 해저터널 등 한국의 발전상을 살펴봤다. 월주 스님은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짜두스(남, 11세) 학생은 “미얀마로 돌아 가면 열심히 공부해 미얀마를 한국처럼 더욱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소감



금강사에서 월주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미얀마 아이들

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본 후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정인 스님은 전교생들에게 문구세트를 선물했고 월주 스님은 방문단체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9월 중

◆개강일시 : 2013년 9월 9일 월요일 개강  
매주(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新製品**

## “YD-675 마이크” 100개 주문 한정 판매!!

스님들께서 보다 좋은 소리의 마이크를 원하심을 알면서도 단 100개만 판매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0년전, “유코음향연구소” 김문화 소장이 개발 판매했던 신제품 마이크인 「DX-707 스탠드 마이크 (2000대판매)」를 기억하십니까?

여러 스님들의 요구에 의해, 또다시 맑고 깨끗한 소리의 고품질의 「스님 육성전용 YD-675 마이크」 The New Edition으로 1차분 100개 한정해 주문 제작 판매 합니다. 본 마이크를 소장하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걸이용 장식도 드립니다)

▶ YD-675 고음질 마이크란?

音響研究家 김문화소장이 직접 개발 제작하는 스님 법문전용 手製마이크로 고순도 니켈코아와 정밀 코일을 채택한 음성전용드랜스를 사용해 불필요한 소리의 초저역 저주파는 억제하면서 맑고 깨끗한, 귀로 듣기 좋은 주파수 대역만을 보다 잘 표현하도록 독자 개발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Stuart 브랜드”의 특수마이크입니다.

Stuart 상표는?

유코음향연구소 김문화 소장이 특허청으로부터 1986년 12월 27일자로 상표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도록 제조하는 모든 마이크에 사용하고있는 고유 브랜드로서 대표적인 마이크로 “DX-707” “V-606LC” “V-620” 신제품 “YD-675”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마이크는 사찰 외에 일반 시중에는 단 1개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 주문방법 :

- 은행 계좌로 입금후 주소를 Fax나 전화 문자로 넣어주시고,
- 입금확인 순서에 의해 3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마이크 코드가 필요하시면 프리그의 종류와 길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2-610-963886 예금주 : 김문화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